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5권 2004년 11월 13일

영동북부지역 전통민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왕곡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aditional Fork House of Change in Northern part Young-Dong Region

- the case of wang-gok villages -

○ 임 하 나* 김 경 호**
Lim, Ha-Na Kim, Kyung-Ho

Abstract

A Study traditional folk house and primary factor from investigation of Wang-Gok villages space composition program which is contains regional color, economy, rationality. From that's all, Analysis the effect of modern life style to folk house space pattern change and a primary factor of northern traditional fork house type of Korea.

1. Analysis and arrangement space composition structure about natural · geographical · cultural environment.
2. Examination existing commoner's house research by a region, space program for understanding house pattern, specially double rows which are partitioned by walls in northern part of Young-Dong region.
3. Analysis folk house character and object house information. by the way, Investigation changing of commoner's house space program with modern life style.

키워드 : 영동북부지역, 전통민가, 왕곡마을
Keywords : Northern part of Young-Dong region, traditional folk house, Wang-Gok villages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가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후와 지리적 특성과 같은 자연적 배경은 물론 생업과 관습까지 담겨져 있다. 특히 경제성과 합리적인 정신을 토대로 지어지는 것이 민가이므로 여기에 담긴 공간구성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1]*

민가의 특성은 지리적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자는 영동북부지역 민가의 형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동북부지역 전통취락 중에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왕곡마을을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민가의 특성과 양상을 고찰하고, 거주자의 주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민가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정회원,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1)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경상북도", 1992. 9 , p 4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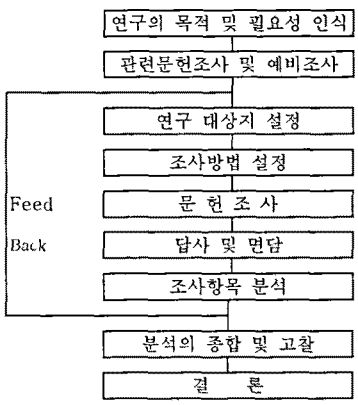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오봉 1리에 위치하고 있는 왕곡마을이며, 조사대상 가옥은 대상지역에 현존하는 주거 중 건립연대는 19세기 중엽 전후로부터 1945년까지로 한정지었고, 보존상태는 평면에 있어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거, 난방과 취사의 형식이 개량하지 않았거나 개량하였더라도 본래의 가구(주요 구조체)가 남아있어 건축당시 모습을 복원이 가능한 주거,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와 비어있더라도 건축구조물이 기울거나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어 있는 주거로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 민가의 연구 진행방법은 선별기준에 맞는 민가를 찾아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치와 평면을 위주로 하고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가옥의 증·개축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연구 과정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과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마을인 왕곡마을을 자연·지리적 환경과 인문·사회적 환경, 그리고 왕곡마을의 평면 및 공간구성을 고찰하여 정리한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가에 관한 기존연구를 지역별, 평면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그중 영동북부지역 민가의 특성을 기존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셋째, 위에서 고찰한 민가의 특성을 기준하여 연구대상 민가의 기존자료와 답사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도면화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 민가의 공간구성이 거주자의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왕곡마을의 일반적 고찰

1) 왕곡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

강원도 고성군 오봉1리에 위치한 동족마을인 왕곡마을은 해안성 기후와 태백산맥의 지형적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비와 눈, 바람이 많다. 또한 오봉리는 오음산을 주산으로 하여 두백산, 공모산, 순방산, 제공산, 그리고 호근산 등 5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고 송지호의 호반을 끼고 울창한 송림에 싸여 있다.

왕곡 마을이 동족마을로 뿌리내린 것은 조선시대의 혼란한 정쟁 속에서 관의 힘이 크게 미치지 않는 곳에 터전을 마련한 경우로서 고려말 두문동 72인 중의 한 분인 홍문박사(弘文博士) 함부열(咸傅說)이 조선왕조 건국에 반대하여 간성으로 은거한 데서 연유되었다. 그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5세손인 김주원(金周元)이 785년(신라 원성왕1년)에 강릉의 명주 군왕으로 봉하여질 때 그를 뒤쫓아온 신하 함신(咸信)의 6세손인 규(規)를 중시조로 한 강릉 함씨의 13세손 승경의 차남으로 고려사직을 지킬 것을 주장하다가 실패하여 일족을 이끌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양근 함씨(陽根 咸氏)로 본관을 칭하며 산간오지였던 간성 금수리에 이전하였던 곳이다.

그 후 그의 장손 치원은 간성에 남고 차손 영근은 다시 이 마을로 이주하여 자리 잡게 되었다.[2)]

2)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 3 강원편" 기문당, 1999, p.338

왕곡마을의 형태적 및 사회적 특성은 <표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 분	마 을 명
형태적 특성	지리적 위치	산 지 촌
	밀 집 형 태	집 촌
사회적 특성	생 업	농 촌
	성 립 과 정	자 연 형
	사 회 계 급	민 촌
	동 족 구 조	집 성 촌

<표 2-1> 왕곡마을의 형태·사회적 특성

현재 왕곡마을에는 총 45가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는 남자가 60명, 여자가 51명을 총 111명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논이 16.9ha, 밭이 29.2ha, 임야가 154ha 이다.

2. 왕곡마을의 민가형식

1) 영동지역 민가 연구사

(1) 민가의 기존연구 고찰

①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한 민가형 분류

이와쓰키는 「조선 민가의 구조에 관해서」(1924, pp.2~11)에서 북선형, 경선형, 중선형, 서선형, 남선형으로 분류하였다.[3] 노무라는 「조선 주택의 일고찰」(1938, pp.12~39)에서 제주도형, 북선형, 일반형, 도회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영택은 「평면 구조에서 본 한국의 가옥 분포」(1965, pp.6~8)에서 관북형, 관서형, 중부형, 남부형으로 분류하였다. 장보웅은 「한국의 민가 형식 분류에 관한 시론」(1974, pp.45~51)에서 산지형, 평야형, 도서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남철은 「한국 주택 건축」(1986, pp.73~87)에서 함경도 지방형, 평안도 지방형, 중부 지방형, 서울 지방형, 남부 지방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평면을 중심으로 구분한 민가형 분류

장보웅은 「한국의 민가형 분류와 문화 지역 구분」(1980, pp 41~58)에서 겹집형과 홑집형으로 분류하였다 김홍식은 양반집을 제외한 민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평면의 형태에 따라 곱은자집과 一자집으로 분류하였다. 곱은자집은 ㄱ자, ㄷ자, ㅁ자집을 포함하여 꺾음집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4] 김광언은 단열형을 홑집으로 복렬형을 겹집으로 명명하면서 겹집계통에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집을 홑집계통에 평안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경북의 일부지방 제외)집을 포함시켰다.[5]

(2)영동지역 민가의 기존연구 고찰

영동지역의 민가를 지역적 특성과 형성에 따라 영동북부지역 민가와 영동남부지역 민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영동북부지역의 민가

공통된 특징은 田자형 실의 배열을 하고 외양간이 부엌에서 ㄱ자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까치구멍이 있는 팔작지붕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가의 규모는 정면 4칸·3칸과 측면 2칸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본 연구의 대상지도 이에 속한다.

② 영동남부지역의 민가

민가의 기본적 평면은 영동북부지역 민가와 같이 田자형의 실의 배열을 하고 있으며 민가의 구성요소가 몸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영동북부지역 민가와 차이점이 있다면 외양간이 ㄱ자형으로 꺾여진 것이 아니라 一자형으로 정지에 인접하고 있는 점이다.[6]

2) 기본형식

(1) 겹집 평면형식

겹집[7]의 기본형식은 <그림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면이 ㄱ자형으로 전면 4칸 측면 2칸으로 총 8칸의 규모이다. 또한 평면은 안방·도장방·사랑방·마루·부엌·외양간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요소가 몸채 내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쪽에 2칸의 커다란 부엌이 자리 잡고 있는

3) 홍영옥, "한국건축사", 민음사, 1992, p.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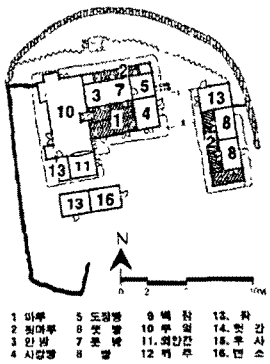
4)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5)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8, pp.206~207

6) 조성기·지호경,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9권, 1987, p.82

7) 여기서의 겹집은 왕곡마을의 가옥이자 전형적인 영동북부지역 민가의 기본형식으로서의 겹집을 지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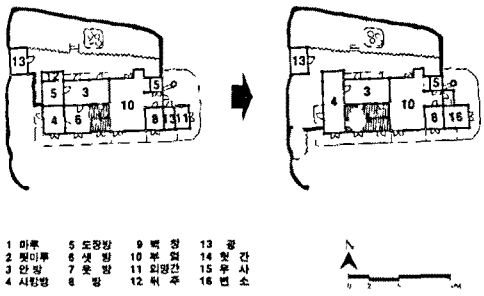
데, 이는 집안출입의 주 통로이자 뒷마당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엌과 마루사이에 칸막이가 없고 부엌과 외양간도 트여있는데, 이는 정주간이 있는 함경도 지방의 평면과 남쪽지방의 마루가 합쳐진 형상으로 부엌에서의 체열채난에 의한 온기를 외양간과 마루까지 자연대류 시키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8]



<그림 2-1> 겹집의 기본형식 - 함정균 가옥 평면도

(2) 연구대상 민가현황

① 함탁영 가옥



<그림 2 -2> 함탁영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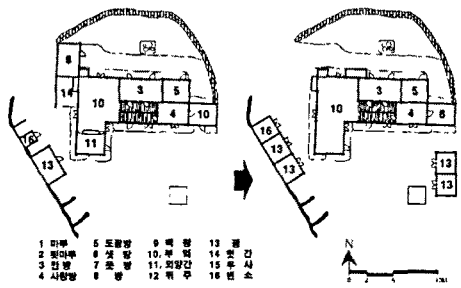
전면 4칸, 측면 2칸의 구성으로 기본형식인 ㄱ자형에서 외양간이 부엌 앞이 아닌 옆에 붙은 一자형이다. 또한 실구성은 기본형식과 같으나 부엌이 동쪽에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사랑방의 확장으로 인하여 앞마당과 뒷마당의 경계담의 위치가 변화하였고, 담장 앞으로 화단이 조성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실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2>과 같다.

② 함병식 가옥

과거	현재
도장방	사랑방
샛방	마루
광	변소
외양간	욕실
부엌(좌식)	부엌(입식)

<표 2-2> 함탁영 가옥 실변화



<그림 2-3> 함병식 가옥 평면도

전면 4칸, 측면 2칸의 기본형식인 ㄱ자형으로 특이한 점은 사랑방 옆에 부속된 사랑부엌으로 다른 가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엌의 서쪽에 위치한 방과 헛간은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농기구를 둘 수 있는 광이 사랑방 앞과 변소 옆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실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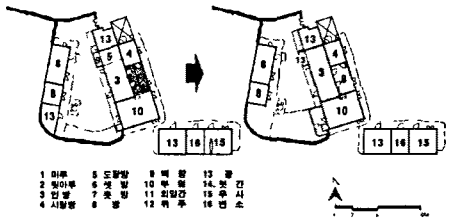
과거	현재
방	소실
헛간	소실
외양간	부엌
사랑부엌	방
부엌(좌식)	부엌(입식)

<표 2-3> 함병식 가옥 실변화

③ 함승본 가옥

전면 4칸, 측면 2칸인 一자형으로 가옥배치가 북동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지형의 영향으로 좌위를 선택하고 경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현재 가옥을 음식점으로 운영중이며, 편리상 마루를 방으로 교

8)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 3 강원편", 기문당, 1999, p 344



<그림 2-4 > 함승본 가옥 평면도

체하였으며, 부엌의 개조 및 확장도 불가피하였다고 한다. 개구부도 외형은 띠살문이지만, 실내 쪽으로 창호를 덧대어 방풍을 막았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실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4>과 같다.

과거	현재
별채의 광	소실
도장방	안방
마루	방
부엌(좌식)	부엌(입식) 증축

<표 2-4> 함승본 가옥 실변화

(3) 기본형식의 변화요인 및 내용

민가의 형태와 실의 구성은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겹집의 기본형식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방식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기본형식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① 변화 요인

겹집형태의 민가는 한정된 내부공간이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첫째, 가족구성원의 증가에 따른 취침공간의 부족과 의례활동을 하기에 작업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방의 확장 및 마루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둘째, 핵가족화로 구성원의 감소가 공간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공간의 변경 및 소실로 나타났다

셋째, 농기구의 발달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적어지면서 외양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 밖의 요인으로는 현대의 위생시설과 난방시설의 도입을 들 수 있다.

② 변화 내용

생활요인에 의한 변화가 가장 크다.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기구의 발달은 외양간의 용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위치가 부엌과 연결되어 있어서 부엌의 확장이나 광으로 실이 변하게 되었다. 농기구의 증가는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필요성을, 기계화로 재배된 많은 수확 작물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광이 필요해 지기 때문에 신축되기도 하였다. 함병식 가옥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함탁영 가옥에서는 외양간을 현대화된 위생시설로 개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주자의 주생활의 변화로 부엌의 입식화가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증축도 하였다. 그 예로 함승본 가옥을 들 수 있다.

III. 결 론

전통민가는 거주자의 생활방식이 변함에 따라 공간이 변화하게 되며, 이러한 공간들은 생활에 편리하도록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영동북부지역의 민가의 특성을 기존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대상지역의 민가의 현지답사 및 면담을 통하여 거주자의 생활이 변함에 따라 민가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동북부지역의 민가의 특성은 田자형 실의 배열을 하고 외양간이 부엌에서 ㄱ자형으로 돌출된 형태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평면형태의 특징은 정주간이 있는 함경도 지방의 평면과 남쪽지방의 마루가 합쳐진 형상이라 판단된다.

둘째, 왕곡마을은 평면형식은 전부 겹집형이며, 대부분의 가옥이 ㄱ자형의 형태를 가진다. 기본 평면형식은 전면 4칸 측면 2칸으로 총 8칸의 규모이며, 안방·도장방·사랑방·마루·부엌·외양간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요소가 몸채 내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셋째, 왕곡마을의 기본형식의 변화요인 및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의 실생활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겹집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내부공간의 확장 및 별채 증축으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향후 본 연구의 전통민가 변화에 관한 연구가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평면별로 더욱 자세한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전통민가의 보존 및 변화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경상북도", 1992. 9 , p.4
2.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 3 강원편" 기문당, 1999, p.338, 344
3 홍영옥, "한국건축사", 민음사, 1992, p.202
4.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5.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8, pp.206~207
6. 조성기·지호경,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9권, 1987, p.82
7. 조성기·지호경,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7권, 1986
8. 박경호 외, "강원도 전통민가 및 취락구조에 관한 연구-오봉 1리 동족마을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27권, 1990
9. 진규홍, "강원도 평창군 민가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0. 장보웅, "한국민가의 지리적 전개", 일지사, 1996
11.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2000
12.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3. 백영흠·안옥희, "한국 주거역사와 문화" 기문당, 2003